"맛의 비법은 싱싱한 재료와 불의 조절에 있습니다"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 "향원(Golden China)"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음식은 단연 짜장 면, 짬뽕 그리고 탕수육이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어린 시절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였고, 어른이 된 지금 도 언제나 후각과 미각 그리고 눈을 황홀하게 만드 는 요물(?)이다. 그래서 이들 음식으로 한국인의 입 맛을 사로잡는다면 맛보지 않은 그 식당의 어떤 종 류의 음식맛에도 신뢰가 간다.

터스틴에 위치한 '향원' 은 바로 그런 중국음식점이다. 이미 입소문이 자자해서 '향원' 에 대해 중언 부언하는 것이 오히려 구차할 지경이다.

'향원'에서는 MSG를 사용하지 않는다. MSG를 넣지 않고 음식맛을, 그것도 중국음식맛을 낸다고 하니 믿기 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향원'의 주방에서는 MSG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 로잡은 맛을 낼까?' 궁금해진다. 비결은 싱싱한 천연의 음식재료와 불의 세기에 있다고 '향원'의 사장님은 귀 띔한다. 불의 세기를 잘 조절해서 재료가 가장 좋은 맛 을 내는 시간만큼 조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느끼한 맛을 싫어 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기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기름도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무해하다. '향원' 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탕수육을 먹어보면금방 알 수 있다. 깨끗한 기름에서 튀겨진 탕수육은 그색이 밝은 노랑을 띠고 있어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하며,한입 머금는 순간의 바삭함과 고소함은 담콤한 소스와 어울어져서 입안을 황홀하게 한다.

모든 음식에 푸짐하게 들어있는 식재료는 맛을 위한 기본이다.

한국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향원' 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해물비빔짬뽕' 과 '콩나물 짬 뽕' 그리고 '매운 하얀 짬뽕' 이다. '향원' 의 짬뽕이야





이미 그 맛이 정평이 나 있어서 달리 소개할 필요가 없 겠지만, 이 세 짬뽕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매일 무엇 을 먹을까 고민하던 가족들을 위해 짬뽕을 색다르게 조 리해 보았더니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 '향원'의 메뉴에 추가하여 보았다. 그랬더니 한 번 먹어 본 고객들이 그 맛에 반하여 정식 메뉴로 추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 제는 마니아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해물비빔짬뽕' 은이름 그대로 국물이 없이 해물을 비롯한 각종 재료를 비벼 먹는 짬뽕이며, '콩나물 짬뽕' 은

전통적인 짬뽕에 콩나물을 넣어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짬뽕으로 해장용으로도 제격이다. '하얀 매운 짬뽕' 은 할라피뇨로 매운맛을 낸 국물이 맑은 짬뽕이다. 매운맛마니아라면 지금 바로 '향원' 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면 큰 만족감을 가지고 문을 나설 것이 분명하다.

'향원'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모임을 즐 길 수 있는 단체석도 잘 갖추어져 있다. 12명, 24명,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은 물론 홀과 분리된 공간에 40여명의 단체석이 마련되어 있어 교회나 단체, 가족 모임의 장소로도 좋다.

화요일-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9시까지 문을 연다. 월요일은 휴무이다.

▶ 문의 : (714) 838-0212/0438

▶ 주소: 1046 Walnut Ave., Tustin, CA 92780

OC 한미식품상협회 '제26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오렌지카운티(OC) 한미식품상협회(회장 한우태) 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12일(화) 오 전 11시 코스타메사 골프코스(1701 Golf Course Dr.)에서 연다. 올해로 26회째이다.

OC에서 마켓과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 26년 동안 매년 연말 10 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그동안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 500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우태 회장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뜻 깊은 골프대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 다." 라며 "골프대회는 인적 네트워트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회 참가비는 회원 50달러, 비회원 100달러이다.

▶ 문의: (714) 875-2978 (임재황 대회장) (949) 202-7038 (한우태 회장)

